

CJ, 라이신 글로벌 1위 도약

중국 아미노산 공장 9월 가동 ... 10만톤 증설로 총 60만톤 달해

CJ제일제당이 중국에 건설한 사료용 아미노산 공장을 9월 본격 가동한다.

CJ제일제당은 9월 중순께 선양에 총 4억달러를 투자한 생산공장을 완공해 사료용 아미노산인 라이신(Lysine)과 쓰레오닌(Threonine), 식품조미소재 핵산을 생산한다고 9월2일 발표했다.

증설로 라이신 10만톤, 쓰레오닌 5만톤, 핵산 3000톤의 생산능력이 추가돼 CJ제일제당은 중국 내 총 최대 생산능력이 라이신 20만톤, 쓰레오닌 5만톤, 핵산 1만3000톤으로 확대된다.

특히, 선양공장의 생산이 본격도에 오르면 라이신 생산규모가 총 60만톤에 달해 경쟁기업을 제치고 생산량 기준으로 세계 1위에 오른다고 CJ제일제당은 밝혔다.

미국 아이오와에 건설하고 있는 라이신 공장까지 합치면 총 70만톤까지 생산능력이 확장돼 규모면에서 경쟁기업들을 압도한다고 CJ제일제당은 덧붙였다.

현재 세계 라이신 시장은 30억달러 규모로 중국 GBT가 시장점유율 1위, CJ제일제당과 일본 Ajinomoto가 공동 2위, 미국 ADM(Archer Daniels Midland)이 4위를 차지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2013년까지 라이신 분야 세계시장 점유율 3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인도네시아 줌방공장에서도 핵산을 증산해 2013년까지 시장점유율을 48%까지 높여 경쟁기업인 Ajinomoto와 격차를 10%포인트 이상 벌릴 방침이며, 2013년 말 완공을 목표로 말레이시아 테랑가누에 생산능력 8만톤의 메티오닌(Methionine) 공장도 건설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친환경 바이오공법을 도입한 메티오닌 공장까지 완공되면 CJ는 라이신, 메티오닌, 쓰레오닌, 트립토판(Tryptophan)까지 4대 사료용 필수아미노산 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식품 시장은 이제 성숙단계에 접어들어 성장 여지가 크지 않지만 그린바이오 분야는 신성장 동력으로서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이미 매년 30% 이상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20%에 달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9/03>